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1. 임시공동의회가 오늘(11월 28일) 오후 4시 ZOOM으로 진행됩니다.
2. 오늘 BTS2는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3. 하반기 성경필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11월말 까지)
4. 독일교단의 (EKHN)규정에 따라 저희 교회는 3G 규정을 지키면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추가로 각 사람이 1.5m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예배당에 허락된 참석 인원이 최대 27 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청소년부와 주일학교는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 우선 참석하시도록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마스교회로부터 새로운 규정이 나오면 다시 적용시키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12월 5일(주일)부터 2부제로 드리는 예배는 토마스교회 일정으로 한 주 뒤인 12월 12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새로 등록된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채린 : 마인츠 음대에서 첼로 전공 / 장하선 : Abitur 준비  
박다영 : 마인츠 음대에서 비올라 전공 / 이정원 : 마인츠대학 언어학 전공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제36권 48호 2021년 11월 28일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예배 1부 오전 12:3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31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115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신진욱 집사
봉 헌	Kollekte	85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이사야 64:1-7	인도자
찬 양	Lobpreis	내 주 은혜의 강가로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주 외에는 없나이다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주를 앙모하는자 올라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예배

한성호 목사

섬김이		예배 위원			교회 후원 선교지
담임목사	시무장로	날 짜	기 도	안내	
한성호	소병찬	11.28	신진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르키스탄(다니엘 P)</li> <li>• 코소보(S00)</li> <li>• 독일 쾰른(N00)</li> <li>• 케냐(L00)</li> <li>• 베트남(L00)</li> <li>• 타지키스탄(L00)</li> <li>• 마다가스카르(B00)</li> </ul>
교육전도사	이정수	12.05	기현서		
장재성	이태성	12.12	박영두		
		12.19	이태성		

히브리서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Hebräer 9:27 Und wie den Menschen bestimmt ist, einmal zu sterben, danach aber das Gericht:

예배안내

주일예배	주일 12:30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 20:00	본당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주일 12:30	별관
유년 / 초등	주일 12:30	별관

청소년부예배

	주일 12:30	별관
--	----------	----

청년부예배

	금요 20:00	본당
--	----------	----

## 대강절은...

‘오심’ 또는 ‘방문’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adventus**에서 비롯된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에 끝납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로 2021년 대강절은 11월 28일에 시작하여 12월 24일 밤에 끝납니다. 대강절 동안,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마지막 때에 언약의 완성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 대강절 유래와 대강절을 지키는 자세

성탄에 앞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지켜지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성령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성령 대강절과는 구별되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대강절은 초대 교회시대에 이미 기념되기 시작했으나 성탄 절기에 대한 이견으로 대강절 역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동, 서로마 교회의 통일된 절기로 승인된 4세기 후반 이후에야 대강절 역시 성탄절 전 4주간의 고정된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강절에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자료는 6세기 후반의 '겔라시우스 예전서' (Gelasian Sacrament)입니다. 이 책은 성탄절 전, 대강 절기에 사용될 여러 기도와 성서 낭독의 5주일치 분량을 갖추고 있는데, 이로 보아 당시 교회들이 성탄절 5주일 전부터 대강절 행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강절 기간 동안의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용될 기도문과 성구 낭독문도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일과 금요일 미사 예문집은 영국에서 1549년 성공회 기도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524년 레리다 회의에서는 이 기간 중에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금식을 선포하는 등 그 예식의 내용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과 비슷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구세주의 오심을 바라는 기쁨의 기간인 만큼 사순절처럼 그 예식이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는 절기상 동지(冬至)를 포함하며, 곧이어 올 성탄절의 준비기간으로 사람들은 등불, 모닥불, 화환 등을 이용해 경건한 가운데 그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강절이 12세기 들어오면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 보는 관점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으므로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시며, 마지막 심판 날에는 재림주로서 오실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대강절에 회개와 새 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동, 서방의 많은 교회에서는 대강절에 더 이상 금식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업주의에 물든 성탄절의 요란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강림절의 의미마저 잊게 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날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에 대한 가장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계신문 편집

## :: 겨울이 없는 나무 ::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랄 수는 있어도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 존 번연

It is said that in some countries trees will grow, but will bear no fruit because there is no winter there. - John Bunyan

나무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추운 겨울입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잎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외부활동을 쉬지만 내부에서는 뿌리를 가꾸며 키웁니다.

겨울 동안에 뿌리에 축적한 힘으로 봄이 되면 새싹이 트고, 새 가지가 뻗어나게 되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견뎌내야 하는 혹독한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코로나의 겨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 도 제 목

- ❖ 2021년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에 사랑과 성실함으로 충성되며 2022년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 ❖ 2022년 서리집사, 부서장과, 교사, 구역장으로 임명된 모든 분들이 성령충만, 말씀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 코로나 감염율이 다시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삶과 예배가 위협을 받는 이 때에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와 가정, 교회되게 하옵소서.
- ❖ 어려운 때를 만난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과 열방의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충만함을 주옵소서.
- ❖ 하나님의 백성과 몸된 교회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 나승필, 박다니엘, 백경진, 서원민, 이만민, 이재은, 이정호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

Die Mainz Chung-Ang Gemeinde, als Leib Christi, ist erfüllt von der Gnade des Herrn und eine Glaubensgemeinde, die Freude teilt. Sie ist eine Gemeinschaft aus Menschen, die den Wunsch haben, Gott allein zu verherrlichen. Wir laden Euch ein, Euch an diesem gesegneten Ort an der Gnade des Herrn zu erfreuen und einen wahrhaftigen Gottesdienst zu feiern.